

## 페트리λλι의 번역 개념과 유형: 기호 기반의 초인문학적 가능성

임 동 휘\*  
(부산대)

### 1. 서론

본 연구는 기호작용 중심의 메타번역이론 확립에 앞장서 온 인문학자 수잔 페트리λλι(Susan Petrilli)가 주장하는 기호 기반의 번역 개념과 유형을 조사하고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언어간 번역이 규정하는 번역의 범위와 유형을 초월하여—발화성기반의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삶과 생명작용, 상징능력에서부터 사회, 문화, 소통 작용의 내부 역학까지 번역성(translativity)을 중심으로 새롭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는 것을 그 일차적인 목표로 둔다. 그리고, 인간문화영역 내부의 개별언어간 변환작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되, 페트리λλι의 메타번역적이고 메타기호(학)적인 인식이 광의의 번역의 실체에 대한

---

\* 저자는 2014년 임어경(Eo Kyung Lim)에서 임동휘(Dhonghui Lim)로 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고에서 인용한 Lim, D.와 Lim, E.는 동일한 저자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해도 항상에 그치지 않고 학문 제 분야의 초인문학적 소통 및 통섭 실천을 위한 이론적 틀과 메타분석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페트리리의 메타번역<sup>1)</sup>적 고찰 및 기술 과정에 있어서 번역 본연의 기본 속성과 본질적 작용 메커니즘 및 거시적-미시적 유형체계가 어떠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는지 우선 살펴보고, 페트리리가 주장하는 번역의 기호구조적 속성이 실제로 기호계들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번역유형으로 체계적 구조화 및 도식화가 가능한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퍼스의 해석체와 직결되어 있는 페트리리의 기호(작용) 기반 번역 개념과 유형이 (초)인문학의 균형있고 유기체적인 통섭과 발전에 초학문적인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 또는 실제적인 유용성을 함의하는지를 논하고, 동시에, 페트리리식 (메타)번역이론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새로운 번역 패러다임과 분과학문 제 분야가—메타번역이론의 발전뿐만 아니라—생명/인간 영역의 번역에 대한 다차원적 메타분석 및 (재)고찰, 그리고 더 나아가 초인문학(transhumanities)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적으로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오늘날 전지구적인 범위에서 계획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번역 과정, 활동 및 현상 제반을 관찰하고 탐구할 때, 진정 번역이란 무엇인가, 번역의 근본적인 실체 또는 개념은 무엇인가와 같은 메타기호적이고 메타번역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메타인지적 분석을 위한 도구적 기능과 메타번역이론으로의 인식론적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본질적 성격의 번역 개념은 진정 존재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번역에 대한 이러한 메타기호적 접근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수잔 페트리리의 번역 개념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그 유의미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세

1) 여기서 “번역”은 기존의 어휘적 의미나 널리 수용된 통념 또는 특정 산업분야의 표준화된 용어 및 그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페트리리를 포함한 기호 기반의 메타번역적 연구에 집중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번역” 그 자체의 실체와 속성, 작용 메커니즘은 기호 자체의 내부 영역에 대한 탐구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삼원적 모형 기반) 기호 실체 중심의 번역 패러다임과 이론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쉬르식) 이분법적 기호관을 초월하려는 태도와 퍼스, 시빅, 페트리리로 이어지고 있는 메타기호적 분석능력을 실천하고 고취시키려는 의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계 기호학의 인식론적 흐름과 국내외 번역학의 변천 양상, 그리고 인문학(및 인간과학)의 융합적 발전 과제를 고려할 때<sup>2)</sup>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메타)번역 이론가로서 페트리리를 주목하고 그 메타번역적 인식론을 고찰할 것을 주장한다. 페트리리(2003)에 따르면 번역은 기호과정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기호 자체에 존재론적으로 (따라서 메커니즘적으로) 내재한다. 기호 자체가 지니는 번역적 속성(the translative nature)은 기호의 유형, 환경, 채널, 관련 매체, 목적성, 방향성 등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양상으로 지구의 생명기호계(Biosemiosphere) 전체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현상 및 생명활동, 생명체 내부/ 외부/ 사이에 잠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인간이 자신과 주위 실세계에서 번역적인 속성을 바로 감지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 또한 기호(복합체)로서 번역현상(translational phenomena)의 실시간 작동 및 변화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역 패러다임은 의미와 해석의 열린 세미오시스 네트워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중립적 또는 가치배제적 과학적 연구에 따른 생물/ 자연 과학의 절대적 보편원리로 생명계를 단정짓는 접근법을 지양하며 또한 수의 논리와 등가 법칙 하에 교환의 공식으로 모든 현상을 기술, 설명하려는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메타 인식론 상의 비판적 태도는 인문학적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초인문학적 성격의 인간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 이유는 오늘날 학문분야 제반(예.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메타이론적 성찰과 분석에서 절대적 진리 가치와 절대보편적 과학 원리가 인간현상과 자연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습적이거나 정치문화적으로 우세한 성향의 특정 관점 및 방법론을 대신할 수 있는 건설적이면서도 비판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호학적 패러다임 중에서도 인간사회 중심의 교환경제 논리를 비판하고, 생명기호계(즉, 삶의 전지구적 존재범위)

2) 국내 학술분야, 특히 번역학과 언어학 분야에서는 기호 기반의 (메타) 번역 개념과 페트리리라는 기호학자가 생소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전지구화시대의 세미오시스 유형들과 그 심층의 원리(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비)주류 이론인지 또는 (비)우세 방법론인지의 여부를 떠나서-메타 인식론과 메타 번역 메커니즘을 통합적, 체계적,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세계의 학자들 중 페트리리의 관점을 통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와 인간기호계(즉, 언어 능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인간문화영역) 모두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퍼스(Peirce), 시빅(Sebeok), 바흐친(Bakhtin), 웰비(Welby) 등의 삼원주의/대화주의 기호 패러다임과 개념들을 다차원적으로 면밀하게 이해한다는 점에서 페트리리의 메타번역적 인식과 메타기호적 분석력은 메타번역이론의 모색 및 연구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퍼스의 삼원적 기호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시빅의-인간중심, 문화중심 인식을 초월하는-생명 기호작용 중심 기호관을 잘 이해하고 바흐친의 대화주의(dialogism)와 웰비의 원초의미(primal sense)로서의 모의<sup>3)</sup>(母意/ Mother-Sense<sup>4)</sup>)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페트리리의 번역 패러다임은 오늘날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지구화 시대의 삶의 모든 경험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번역 메커니즘의 중요성과 함께 번역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 (메타) 번역 방법론과 그에 대한 (메타/ 초) 기호학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생명기호윤리학(Biosemioethics)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고찰을 요청한다(Petrilli 2014).

본고는 페트리리의 기호기반 (메타) 번역론에 대한 기초연구 프로젝트의 일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짜여진다. 첫 번째,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념적, 현상적 접근법을 초월하여 새로운 메타번역적(재) 분석, 고찰을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중 하나로 페트리리의 번역론을 소개하고 그 (초) 인문학적 연구 가치와 가능성을 가정한다. 두 번째로 제 2장 선행 연구에서는 번역의 주요 개념 양상을 오늘날 번역학 분야에 집중해서 간략히

3) 이 용어에서 어휘 mother은 젠더의 경계를 나누고 차별화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 아니며 이 용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페트리리의 연구(2009, 2014)가 참고 가능하다.

4) Mother Sense는 Primary Sense, Primal Sense 등으로도 명명된다. 웰비의 기호론과 페트리리의 해석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용어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좀 더 깊은 성찰과 주의를 요구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영어단어 sense가 한국어 어휘 중에 일대일 대응관계를 유지하는 단일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perception과 관련시켜 감각이라고 칭할 경우에는 감각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혹은 명확하지 않은) 의미망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웰비가 Mother Sense를 통해 의도한 바가 단순 생물학적 감각 능력/ 작용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실험주의적으로 모의(母意)라고 잠정 번역하여, 그 뜻에 명확성을 더할 수는 없어도 큰 왜곡 없이 기본이 되는 의미는 표현하고자 한다.

정리하고, 제 3장에서 다룰 페트리리의 기호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찰스 퍼스의 메타기호적, 초기호적 번역 개념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페트리리의 번역 패러다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페트리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기호기반 번역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더 나아가 생명기호계와 인간기호계 내에서 번역을 어떻게 유형화시키고 있는지 기술한 후에 그 번역유형의 체계성을 위계적 도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상기한 기호기반 번역 개념을 오늘날 인문학과 인간과학 분야에서 대면하고 검토해야 하는 번역관련 문제들 및 연구 과제들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고, 논의점과 질문들을 제시한다. 또한, 페트리리의 (메타) 번역 패러다임이 가지는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객관적,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 및 고찰한 바에 대해 결어를 제시하고, 페트리리의 (메타) 번역적 접근과 견지가 번역학뿐만 아니라 (초) 인문학적 연구와 발전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을 역설한다.

## 2. 선행연구: 번역의 개념

일차적으로, 페트리리의 번역 개념을 다루기 전에 간단히 번역의 개념에 대한 여러 주요 입장을 기술하고 논의함으로써 번역에 대한 통념과 메타번역이론상에서의 번역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식론적 지평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론과 실제의 영역 모두에서 양적으로 가장 우세한 번역은 interlingual translation, 즉, 특정 개별어간 번역<sup>5)</sup>이다.

5) ‘특정 개별어간 번역’은 interlingual translation에 대한 저자의 잠정적인 한국어 번역이다. 한국어 번역(학) 분야의 용어로 현재까지는 ‘언어간 번역’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실제로 언어의 세밀한 정의와 유형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모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축자적인 단어-대-단어 번역(word-for-word translation)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 interlingual이라는 표현은 interlinguistic이라는 표현과도 구별되어야 하기에, 언어학 분야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언어(natural human language)의 실례 중에 구어 중심으로 발달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성격의 공동체 언어를 가리키는 a particular language, 즉, ‘개별언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유용하다고 사료된

interlingual translation이라는 표현은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의 1959년 논문에서 번역을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명명한 것으로, 두 개의 상이한 개별언어(particular languages)를 원천언어(source language)와 목표언어(target language)로 취함으로써 나타나는 번역 일반을 가리킨다. 특정 개별어간 번역은 통상 다음과 같이 정의<sup>6)</sup>내린다.

(1) 번역은 한 언어(원천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의미적 등가, 문체적 등가를 유지하면서—또 다른 언어(또는 목표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Bell 1998: 5)

이러한 번역에 대한 정의는 학문적 논의의 범위와 목표에 따라<sup>7)</sup> 약간의 수

다. 여기에 ‘특정’이라는 수식어를 더하고 ‘개별언어’를 ‘개별어’로 수정한 것은 (개별언어를 언어의 한 실례로서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와 장소에 종속되어 나름의 구체성을 띠는 개별언어들의 특정 실례들(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언어와 현대 한국어를 구별하듯이, 개별언어와 개별어를 구별함으로써 lingual의 번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6) 벨이 여기서 명시한 정의는 라루스(Larousse)에서 1973년에 출판한 『언어학사전(Dictionnaire de Linguistique)』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벨은 프랑스어로 된 사전적 정의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영문 번역을 추가시켰다. 사전 항목의 “Traduire c'est énoncer dans une autre langage (ou langue cible) ce qui a été énoncé dans une autre langue source, en conservant les équivalences sémantiques et stylistiques”(Dubois et al. 1973: 490)라는 내용에 대한 벨의 영문번역에 따른 정의는 “Translation is the expression in another language (or target language) of what has been expressed in another, source language, preserving semantic and stylistic equivalences”(Bell 1998: 5)로 정리되는데, 번역 구절에 나타나는 언어학적 개념 및 번역전략의 문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 7) 실제 (과정/ 작용/ 활동/ 현상/ 결과물로서의) 번역에 대한 본질을 다루는 작업이 주어졌을 때, 담당 학자의 학문적 성향과 배경이 상이한 경우(예. 기술주의(descriptivism) 성향의 문법학자, 인지과학 영향 하의 인지언어학자, 촘스키 통사이론 전공의 언어학자, 영어교육학 기반의 번역교육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전공의 비평론가, 성경번역 연구의 경험이 있는 해외선교사, 초국가기업 또는 비정부기구 소속 공문서 번역사, 다언어구사능력을 갖추어 창작과 번역을 겸하는 문학가, 다매체 행위공연 전문 예술인, 번역학을 대학교 커리큘럼 내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메타번역이론 학자, 컴퓨터/ 인터넷 환경 기반 기계번역 프로그램 개발자, 다중언어 코퍼스 구축이라는 특수 목표 하에 대조분석 방법론을 활용하는 어휘론자, 지구생태학 관련 학술활동에 참

정 또는 심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 텍스트, 재현(representation), 등가(equivalence)와 같은 관련 용어들에 대한 상세한 정의 작업의 필요성을 차치하면 - 일차적으로 특정 개별어 간의 상이성을 번역의 발생조건이 되는 경계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정의들과 공통점을 가진다. 심화된 유사 정의의 한 예<sup>8)</sup>는 다음과 같다.

(2) 번역이란 한 언어로 되어 있는 어떤 텍스트의 재현(물)을 제 2의 언어로 된 등가적 텍스트의 재현(물)로 대체해 놓은 것이다. (Bell 1998: 6)

야콥슨은 특정 개별어간 번역을 가리켜 번역의 정석(translation proper), 즉 진정한 의미의 번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내 및 해외 번역학 분야와 주류를 이루는 세계의 번역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특정 개별어간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자와 문어가 지식의 통제와 보급에 주요 수단이자 원천이 되었던 여러 정치, 문화, 종교, 교육 공동체들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정 개별어간 번역에 의존하여 정보의 가치와 신뢰도<sup>9)</sup>, 공동체성 등을 유지 및 확산시켜 왔고 문자 비사용 문화권 또는 문자 역사 이전의 여러 공동체들에서도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 목적성에 따라 각자의 구어적 환경 및 자원을 번역적으로 활용하여 왔음이 추론

여하는 생명기호학자 등), 번역의 기본적인 정의와 그 명제의 내용과 형식에 내재되어 있는 번역관은 극적인 차이의 존재가 불가피하다.

- 8) 상기한 내용은 벨(1998: 6)이 인용한 하트만 & 스토크(1972: 113)의 정의를 잠정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실제 본문의 내용은 “Translation is the replacement of a representation of a text in one language by a representation of an equivalent text in a second language”(Ibid.)로 정의되어 있다. 원천텍스트인 『언어·언어학 사전』은 30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벨(1998)에서 언급하는 713페이지는 인용 정보 상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번역학 학술 논문들에서 벨(1998: 6)을 단순 인용함으로써 (Hartmann & Stork 1972: 713)가 양산되어 있는 상태다.
- 9) 특정개별어로 작성된 텍스트와 그 정보가 특정 개별어간 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와 의미로 재구성될 때, 그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는 번역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정확한 등가(equivalence) 실현의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번역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 유형적 분류에서는 등가의 문제를 열외로 두는 경향이 크다.

또는 검증 가능하다. 오늘날 번역학 분야에서는 구어와 문어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언어라는 동일 범주 안에 두고, 통역(interpreting)과 번역(translating) 과정 및 현상을 한데 묶어 번역(translation)이라고 총칭하는 경향이 크다(Baker & Saldanha 2009). 성제롬출판사의 번역학사전에서는 번역을 다음과 같이 확장적으로 정의<sup>10)</sup>하고 있다.

(3) 수많은 상이한 방법으로 이해 가능한,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 예를 들어, 번역에 대해 하나의 과정으로서 또는 결과물로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학번역, 기술번역, 자막번역, 기계번역과 같은 예들을 번역의 하위유형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혹자는 번역을 논할 때 문서형태 텍스트들의 변환만을 지칭하는 반면에, 오늘날 이 용어는 때때로 통역작업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Shuttleworth & Cowie 1997: 181, Hatim & Munday 2004: 3-4 재인용)

그렇다면 번역의 정의는 이제 통합적인 양상으로 확장, 정리된 것인가? 그리고, 번역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입장(들)이 존재하는가? 새로운 번역 개념(들)이 존재한다면 그 번역개념(들)에서 특이한 관점 또는 인식론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시점에서 몇몇 번역이론가들은 야콥슨의 세 가지 번역 유형 중에서 또 다른 두 가지, 즉, 특정 개별어의 내부적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과 발화성 기호들(verbal signs)과 비발화성 기호들(non-verbal signs)간의 번역<sup>11)</sup>(inter-

10) 본문은 “An incredibly broad notion which can be understood in many different ways. For example, one may talk of translation as a process or a product, and identify such subtypes as literary translation, technical translation, subtitling and machine translation; moreover, while more typically it just refers to the transfer of written texts, the term sometimes also includes interpreting”(Shuttleworth & Cowie 1997: 181)이다.

11) 많은 번역학관련 문헌에서 야콥슨의 intersemiotic translation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기호간 번역이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야콥슨의 용어 intersemiotic translation은 기호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론가들과 비학술분야의 번역 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기호간(intersemiotic)이라는 표현이 지시 또는 함축하는 의미 범위가 모호하거나 추가적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콥슨(1959)은 a verbal sign system과 a non-verbal sign system, 즉, 발화성에 기반한 언어기호체계(구어, 문어형태의 특정 개별어 체계)와 그 외의 비발화성기반 기호체계

semiotic translation)을 예로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기호(과정/ 작용)의 본질과 (메타) 번역의 미시적-거시적 개념 고찰의 중요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야콥슨의 번역유형<sup>12)</sup>을 재고할 때, 이는 번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이고 표층적인 단계에서 (메타 성격) 번역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sup>13)</sup>을 간파할 수 있다. 기호 본연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으로 메타기호적이고 메타번역적인 고찰과 이해 없이는 기호학적 관심과 지식이 충분한 상태에서도—오늘날의 복잡다양한 수많은 기호교차적 번역현상들, 즉, 번역성이 내재된 혼종적 기호작용 관련 (문화/ 언어/ 사회/ 생명) 현상들<sup>14)</sup>을 기술, 설명할 수 있는—메타번역적 번역 개념을 상정하거나 분석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메타인식론적인 층위와 메타기호적 (및 메타번역적) 관점을 고려한 번역의 개념을 제시한 이는—번역학이나 언어학, 문학비평이론 또는 사회학을 근간으로 둔 것이 아니라—기호 자체의 존재론적 성격과 기본 메커니즘을 고려한, 즉, 기호학 기반의 학자라는 점이 큰 주목을 끈다. 스스로를 번역학자라고 칭하거나 번역학 이론서를 따로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기호학과 번역학 분야에서 새로운 (메타)인식론적 태동을 일으킨 장본인은 찰스 퍼스(Charles S.

(특히, 연극, 음악을 대표적 예로 하는, 인간기호계 내에서도 문화기호계에서 생성되는 특정 공연예술형태) 간에 발생하는 기호적 변형만을 자칭 transmutation 또는 intersemiotic translation으로 가리키고 있다(Ibid.).

- 12) 야콥슨의 삼원적 번역유형론과 관련, 이 주장에 대한 상황(기반) 인지(situated cognition) 및 기호/ 번역 작용 중심의 초학문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는 Lim, D. (2014b)를 참고할 수 있다.
- 13) 허먼스(Theo Hermans)는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Millán & Bartrina 2013)에서 번역의 정의에 대한 최근의 주요 쟁점 및 주요 논지들을 다루었다. 야콥슨(1959)의 번역 개념과 관련, 허먼스는 야콥슨이 기술한 것은 번역의 정의가 아니라 번역에 대한 은유적 확장들(metaphorical extensions)이라고 주장한다 (Hermans 2013: 76). 또한, 그는 야콥슨이 기호(학)적 동기에 따라 번역에 대해 고찰한 결과인 삼원적 유형론은 엄밀히 말해 “발화성 기호의 의미(the meaning of a verbal sign)”(Ibid.)에 접근하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지 번역의 정의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 14) Lim, D.(2014b: 315-17)는 야콥슨의 삼원적 번역유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중요한 기호번역 유형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주장한다.

Peirce)라고 주장할 수 있다. 퍼스는 기호학, 철학, 논리학 등 인문학의 범위를 넘어서 많은 분야에서 이미 익히 알려지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인물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바는 퍼스의 기호학 그 자체나 퍼스 사상의 철학적 연보가 아니라 메타번역이론을 위한 근본적인 번역 개념에 대한 고찰이며, 따라서 퍼스 기호학 자체를 번역학 이론으로서 대체하거나 전유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 생성조건(the ontological condition of a sign) 및 기호작용(the sign process/ semiosis) 그 자체에서 번역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론의 영역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가시화하려고 한 노력은 (일반/ 응용) 번역학의 이론과 실습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과학의 사상사의 궤적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 생명) 기호계의 (메타) 세미오시스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퍼스의 번역 개념은 무엇이며 어떠한 번역의 정의를 제공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퍼스는 (메타) 번역 이론을 개별적으로 집필, 발간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기호(학)관련 논문들도 거의 파쇄적 양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sup>15)</sup>. 따라서, 퍼스의 번역 개념을 추론하기 위해 주요 관련 명제들을 기호작용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퍼스의 번역 개념<sup>16)</sup> 관련 명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물은 무언가에 의해 이해 가능하다. 보다 정확하게는, 만물은 무언가에 의해 번역 가능하다<sup>17)</sup>; 둘째, 기호는 그 자신이 또 다른 기호로 번역되지

15) 고를레(Gorlée)는 파편적으로 산재된 퍼스의 논문 전체에 대한—이론적 연구에 선행하는—내용 상의 이해 또한 총체적으로 일종의 기호(학)적 번역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Gorlée 2007).

16) 퍼스의 번역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퍼스의 기호(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의) 기호학 분야에서는 퍼스의 기호 개념이 널리 알려진 내용일 수 있으나, (국내) 번역학과 언어학 분야에서는 아직 많은 (학제간) 논의와 연구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17) 본문의 내용은 “Everything may be comprehended or more strictly translated by something”(Peirce 1982: 333)이다. 축차적인 영한번역을 한다면 “모든 것은 어떤 것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또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은 어떤 것에 의해 번역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가독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잠정 정리하였다. 여기서 주지할 점은, 이해(comprehension), 번역(translation)이라는 표현이 발화성 언어(verbal language) 현상 중에서도 어휘적 의미와 해석을 주로 연상시키기 때문에 마치 구어, 문어와 같은 협의의 언어 범위 내에서만 관련 의미작용(예. 관습적 의미의

않는다면 기호가 아니다. 또 다른 기호에서 기호는 보다 온전히 발달하게 된다 [...]18); 셋째, [기호] 번역은 의미 생성(engenderment of meaning)의 과정을 [즉, 과정 그 자체를] 함의한다19); 넷째, 의미는 하나의 기호를 [여러 기호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기호체계로 번역한/하는 것이다20); 다섯째, 한 기호의 의미는 그

해석)을 세밀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다루는 것이 (광의의) 번역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발화성 언어 범위 내에서의 다양한 해석 양상을 번역의 확장된 사용으로 보는 것은 자칫 피스의 번역 개념을 인간 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발화성 언어 중심주의(glottocentrism)라는 편협된 오류 속에서 단순처리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본문의 인용 구문은 그에 대한 예시로서 한 식물 개체의 화분립(a pollen grain, 미성숙 수배우자체, 속칭 꽃가루)이 자신이 유래한 식물을 위해 스스로가 접촉하게 되는 (또 다른) 식물의 배주(ovule, 밑씨)에 대한 관계를 보여 준다(즉, a pollen grain that stands for its plant to the ovule it comes to contact를 예로 들면서 a pollen grain's transmission of the peculiar properties of the plant에 주목함)(Ibid.). 따라서, 피스의 번역 개념에 비판적으로 (또는 최초로) 접근하는 언어학, 문학, 철학, 번역학, 문화(인류)학, 또는 심리학 전공 학자의 경우라도 전공 분야 외의 (생명) 과학적-그리고 기호학적-현상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이해가 내재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연구 영역 외의 분야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이며 불충분한 해석을 낳는 잘못된 시도가 절대 아니며, 몸을 매개로 한 인간 (따라서 자연 및 문화) 현상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위한 (또한 분과 학문 중심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다.

- 18) 본문은 “a sign is not a sign unless it translates itself into another sign in which it is more fully developed”(Peirce 1934: 594)이다(Gorlée 1994: 121 재인용).
- 19) 머렐(Floyd Merrell)은 『피스, 기호, 그리고 의미』에서 “Peirce’s concept of sign translation [...] entails the process of meaning engenderment: signs becoming other than what they are, becoming ‘a difference that makes a difference’, which is the very essence of semiotic meaning”이라고 기술하고 있다(Merrell 1997: xiv).
- 20) 본문은 “Meaning is the translation of a sign into another sign system [of signs]”(Peirce 1933: 127)이다. 의미에 대한 최신 학술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 일부 언어(과)학, 철학 및 문학 이론에서 비판대상이 되었던-로고스중심주의를 포함한-(발화성) 언어중심주의(linguicentrism/ glottocentrism)가 주로 강조한 지시적 의미(meaning as reference)와 언어기호 형식(a linguistic sign to represent the meaning)의 일대일 대응 관계에 대해, 전통적 의미모형의 형식-의미 공식을 (단순 부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반증하는 과학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Andrews 2014). 언어과학 및 신경인지과학 (특히 뇌과학) 분야에서 개인 뇌의 활성화 양상을 중심으로 실행한 영상분석연구들은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믿었던) 언어

기호가 번역되어질 수 있는 기호다<sup>21)</sup>. 퍼스의 번역 관련 명제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번역 개념은 번역중심적-번역적 구심력, 원심력 중심의-초기호적(메타) 인식의 결과이며 기호작용, 의미작용, 소통작용의 원자적 구성 과정과 메커니즘을 꿰뚫어 파악한 메타번역적 이해를 최소의 공식으로 명시화시킨 번역 패러다임의 정수로 평가 가능하다. 간단히 말해, 어떤 기호가 온전히 한 기호가 되기 위해서는 기호작용의 발생, 즉, (모종의) 의미 생성이 필수조건인데, 기호작용/ 의미생성의 세미오시스 형성과정은 (모종의 대상물/ 지시체를 염두에 두고 선택적으로 발현된) 한 기호체/ 표상체(sign vehicle/ representamen)를 위해 또 다른 기호(체)가 해석체(interpretant)로서 채택, 도입되어 기호(체)의 구체적 의미 / 개념으로서 작용/ 작동/ 기능하도록 할 때 성립된다고 볼 때, 이러한 기호체-해석체-대상물(지시체) 결합체의 한 구성요소로 해석체의 경계초월(trans-)적 과정/ 메커니즘 그 자체를 번역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Petrilli 2003: 17-37).

퍼스의 번역적 속성 파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퍼스 기호학의 주제 상의 방대함과 텍스트 상의 파편성, 해석 상의 논쟁 가능성은 퍼스 기호학이 번역학 또는 메타번역이론 그 자체로 대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퍼스의 번역 개념을 채택하되 자신만의 인문학적 통찰력과 인식론을 잘 적용하여 메타번역이론으로 발전시키고 초학문적 통섭의 방식에 따라 (기호) 번역학의

---

정보 생산-이해(production-comprehension)라는 개별 메커니즘이 뇌의 특정 관할 영역(예. 브로카영역, 베르니케영역)에서만 발생, 작용한다는 가설이 더 이상 학술적 유효성과 과학적 신뢰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Ibid.). 발화된 언어기호의 실례(예. 단어, 형태소, 구문)에 대한 특정 의미를 개인의 몸-정신-뇌가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어 마치 뇌의 내부에서도 (언어 기호체들의 구현 및 재생을 위한) 생산 관련 영역과 (그 의미 연결 및 처리를 위한) 이해관련 영역이 언어특수적이며 독립적인 양상으로 존재한다는 가설은 실제 물리/ 생화학적인-즉 생명기호작용과 관련한-인간현상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론화된 상태다(Ibid.: 4-13). 따라서, 의미 생성 및 재현을 위한 제 양상과 전체 과정에 대한 (학문적/ 실제적) 이해는-단순 알고리즘 기반의 기계적 모형이 아닌-다중양상성(multimodality)과 다차원성을 고려한, 그리고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모든 (생명/ 인간/ 문화) 기호작용을 충분히 살핀 학제간 연구가 필수조건이 되었다.

21) 본문은 “The meaning of the sign is the sign it can be translated into”(Peirce 1933: 132 in Vol.4)다. 챌들러(Daniel Chandler)에 따르면 이 정의는 퍼스의 고유한 번역 개념을 야콥슨(1952b: 566)이 자신의 말로 환언한 것이다(Chandler 2007: 31).

초인문학적 기여도 증진에 앞장 서고 있는 페트리λλι의 번역 개념과 유형을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3. 페트리λλι의 기호 기반 번역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간략히 정리하였던 특정 개별어 사이 또는 기호 내부/ 사이의 경계를 중심으로 한 번역 개념(들)의 범위와 성격을 참고하되 초인문학적 번역 탐구와 번역 기반의 초인문학적 탐색을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두고, 근본적 기호(작용) 구조역학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는 페트리λλι의 기호 기반 번역 개념 및 유형을 일차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1절에서는 페트리λλι가 정리하여 제시한 본질적 번역 개념에 대해 기술하고, 2절에서는 생명 기호계 내의 번역 유형을 살펴보고 위계적 도식을 세분화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각 번역유형의 구체적인 특징 또는 속성을 명시할 것이다. 3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페트리λλι가 주장한 체계적 번역유형 도식을 소개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페트리λλι의 (메타) 번역 개념이 상이한 생명/ 언어/ 문화 영역과 차원에서 일관되면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초인문학적 적용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3.1 페트리λλι의 번역 개념

상기한 바와 같이, 본고는 퍼스의 기호이론 및 번역 패러다임을 적극 이용하여 (메타) 번역이론을 탐구하고 있는 대표적 학자들 중에 수잔 페트리λλι의 성과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페트리λλι는 기호와 기호작용(the sign process, semiosis), 기호 과정, 기호계 내부/ 사이의 메커니즘과 상호작용 등, 기호 자체의 본질과 현상 전반에 대한 (메타) 기호학적 인식론<sup>22)</sup>을 미시적-거시적 차원에

22) 퍼스, 시빅, 페트리λλι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기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호의 삼원적 모형을 우선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소쉬르가 주장한 이원적 기호 개념 및 기호론(semiology)적 틀과 명확히 구분된다. 간략하고 상세한 기호, 기호작용(세미오시스), 메타세미오시스(또는 세미오틱스) 능력에 대한 설명은 Pettrilli

서 기술,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이한 (또는 공유 가능한) 이론적 입장들에 대해 논증하는 방법으로 (메타) 번역이론과 (메타) 기호이론의 (공통된) 토대와 지평을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체화, 이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페트리리의 기호<sup>23)</sup> 기반 번역 개념은 그 이론적 중요성과 실제적 적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계, 특히 국내 인문학 분야에서 소개되고 논의된 바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임동휘(2014a)에서 본질적 번역 개념에 대해 메타번역적으로 접근하여 기호, 인지 중심으로 논하였으나, 페트리리를 중심 이론가로 소개하기보다는 번역 자체에 대한 메타번역적 탐구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페트리리의 번역 개념은 새로운 창작물이거나 혁신적인 주관적 패러다임이 아니며, 또한 관념적, 문체적 장식으로 점철된 해석과 부연에 기반한 형이상학적 정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학과 기호학, 언어과학, 인문학 분야에서 주목을 해야 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삼원적 기호 모형의 전승, 생명/ 의미 중심의 초학문적 융합, 번역 본질의 핵심적 메타이론 발달 등과 같은 과제들을 유의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론적 중심핵, 따라서, 원자적 구성원리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문화의 번역적 기호(작용) 현상을 인문학과 인간과학의 융합적 번역인식론에 근거, 설명하고자 한 본 저자의 기호번역학 논문(Lim, E. 2013)<sup>24)</sup>에서는 기호 기반의 본질적 번역 개념을 기존의 통념에 따른 번역(a translation)과 구별시키는 방법으로 영문 대문자를 사용, TRANSLATION으로 표기하고 그

& Ponzio (2005)의 서문(Introduction)을, 소쉬르의 기호론과 퍼스 전통의 기호학의 차이점 및 페트리리의 입장에 대한 설명은 그 서문(Preface)을 참고할 수 있다 (Petrilli & Ponzio 2005: 3-31, xvii-xxv).

- 23) 또 다른 퍼스기호학 기반의 (메타)번역이론가로 네덜란드의 고를레(Dinda Gorlée)를 들 수 있다. 고를레는 퍼스의 메타 기호(번역) 이론과 이를 (텍스트적/ 인간 세미오시스적) 번역현상 중심으로 발전시킨 Semio-translation 개념에 기반하여 (특정 개별어간) 번역, 문학, 철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심화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Gorlée 2004). 참고로, 자국어 발음은 한국어로 호올레라고 표기하는 것이 발음상 더 정확하다.
- 24) 기호적 번역개념에 기반한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개명전) 저자명은 Eo Kyung Lim으로 표기된다. 임여경(2013)으로 기술해야 하나, 동일 저자에 대한 학술 정보 상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인용 출처는 밝히되 본문에서는 현재의 저자명을 사용한다.

기본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국문 용어의 경우는 임동휘(2014a)에서 그 잠정적 표기로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번역 개념 및 표현과 차별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페트리리의 (메타)번역 개념을 수정, 정리한 임동휘(2014a)의 기본 번역 명제는 다음과 같다.

(4) 번역적(행위주체 및)기호 $z$ 는 또 다른 기호 $y$ 의 (한) 기호가 되기 위해서 다른 기호 $x$ 를 조작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번역(TRANSLATION, translation itself)” 즉, 내재적으로 “번역”적인(translative), 초기호적(transsigns)과정으로서의 “번역”의 예를 실행한다. (임동휘 2014a: 323, cf. Lim, E. 2013)

여기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개념은 번역이 모형화 장치들(modelling devices) 자체 내에서 구조적으로 한 부분을 담당한다<sup>25)</sup>는 것이다. 심지어, 기호 그 자체도 내부적으로 번역적 과정(the translative process)이 존재함으로써 –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운) 해석체가 도입 또는 선택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 스스로 기호됨(becoming a sign)이 가능해질 수 있다. 페트리리식 메타 기호(학)적 개념으로서 번역은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생명차원의 번역(biotranslation)<sup>26)</sup>으로 볼 수 있다. 페트리리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번역의 본질에 대한 초학문적 기호학 연구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나 일반기호학의 영역 내에서 비판적 기호학 연구를 위한 흥미롭고 특이한 방법으로서 이 새로운 번역 개념을 취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양상들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나, 숙지해야 할 점은 번역이 세미오틱스에서 불

25) 페트리리는 『기호연구와 기호윤리학』의 서문에서 “Translation is a structural part of modelling devices”(Petrilli 2014: vi)라고 명시한다. 이 명제는 인간기호계와 생명기호계 상에서 (상대적으로) 각기 다른 양상으로 실현되고 수많은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호계 내에서 항상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26) 용어로서의 biotranslation은 영한번역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축자적으로 생명번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곧 신조어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마치 생명을 번역한다는 한국어 특유의 목적어-술어 관계의 뉘앙스를 준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차원의 번역이라는 표현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페트리리는 transmission이라는 표현도 언급하고 있다. 영어 단어인 transmission은 특정한 용어로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특히 생물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전송, 전염, 유전, 전파 등으로 다양하게 (영한)번역되어 용어화되었다(Ibid.: vii).

가피한 부분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조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는 주요 메커니즘<sup>27)</sup>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페트릴리의 이러한 번역 개념은 번역 유형화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다음 절에서는 페트릴리가 주장한 번역유형론에 따라 번역의 하위 유형들을 기술하고 번역 유형의 총체적인 체계성이 페트릴리의 번역 개념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

### 3.2 생명기호계 내의 번역 유형

페트릴리의 번역 개념과 메커니즘이 이론적 타당성과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 유형화 과정과 양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트릴리가 전지구적 범위(및 우주 전체적 차원)에서 파악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번역 개념 및 패러다임은 어떠한 체계와 유형으로 우리에게 현시화될 수 있는가?

중요한 점은, 기호 자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성격을 번역의 구조적 본질, 다시 말해,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할 때에만 번역의 전체적인 체계와 그 유형적인 분류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체로서, 이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생명기호계를 고려한 전지구적 세미오틱스(global semiotics) 내에서 번역(적인) 과정들은—고정적이고 폐쇄적인 기호체계의 유지와 재생산이 아니라—상이한 기호들과 기호체계들, 그리고 상이한 성격의 언어들 상호연결시키고 의미를 (재)해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메커니즘 그 자체이며, 생명작용과 의미작용의 시발점과 진행, 발전 (또는 진화) 현상 모두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차원적인 양상과 방식으로 그 현존성을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sup>28)</sup> 요소다. 이

27) 세미오틱스(semiotics)라고 표현함으로써 기호학이 분과학문의 한 예로서만 파악되는 경향에 새로운 해석을 더해보고자 한다. 세미오틱스는 기호학의 영어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호현상에 내재해있는 기호 및 기호작용의 기본 규칙 또는 원리를 가리킨다. 즉, semiotics as a principle of the sign (process) underlying semiotic/ semiosic phenomena다. 한편으로, 학문 분야로서의 기호학 또한 번역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이는 번역적 과정(the translative process)이 존재함으로써 기호가 기호로서 존재하고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Ibid.: vii).

와 같은 번역의 구조적 본질과 기호작용상의 전체성(globality)을 고려하면 번역의 유형은 생명기호계를 일차적 기준으로 한 위계적-체계적 도식화가 상정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도식화된 번역유형은 기존의 번역유형론(들)과 경쟁하거나 상호배제적으로 대체되는 내부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절대 형이상학적 또는 순수 생물학적) 도식이 아니다. 페트리리의 도식화된 번역유형체계는 비한정적으로 열린 성격을 띠며 번역-기호 작용을 통해 항상 다양한 의미가 새롭게 거듭나는 유기적이고 상호연결된 기호계(들)에서 최소한의 기본 골격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번역현상과 이에 대한 우리들의 (재)고찰과 (재)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메타번역적 인식 능력이 가지는 과학적, 인문학적 중요성과 책임성을 재확인하도록 돕는다. 전체 도식은 페트리리(2003; 2012)와 임동휘(2014a)에서 참고 가능하며, 본문에서는 우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번역유형학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번역 유형은 기호작용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sup>29)</sup>이다. 페트리리(2003)에 따르면, 기호작용간 번

28) 번역의 작용이 영향력을 미치는 (따라서 모두가 주의깊게 번역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기호계의 범위는 작위적, 인공적인 설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혹자는 인간만의 문화기호계를 예로 들면서 번역현상의 범위를 (발화 기반) 언어, 문학, 예술, 문화의 영역에 한정에서만 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논의의 출발선은 자연적이고 비한정적이면서 비차별적이고 (인간중심/ 문화중심) 고정관념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미현상의 제 영역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욱 과학적이고 훨씬 생산적인 학제간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좁게는 전지구적, 넓게는 전우주적 범위에 대한 번역적 기호작용의 가능성은 퍼스 한 개인의 상상력과 형이상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퍼스뿐만 아니라 찰스 모리스(Charles Morris), 토마스 시빅(Thomas Sebeok)의 기호 패러다임도 번역의 제 영역과 함께 고려 가능하며, 동시대적으로는 마르셀 다네시(Marcel Danesi), 예스퍼 호프마이어(Jesper Hoffmeyer), 플로이드 머렐(Floyd Merrell), 아우구스토 폰지오(Augusto Ponzio)와 같은 기호학자들의 기호 패러다임과 기호론에서도 - 각자의 메타기호인식론적 입장과 세부 관심 분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 근본적인 (기호 기반) 번역의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다(Ibid.: vi-vii). 이렇듯 생명기호계 전체를 (기호 기반) 번역의 최소 또는 기본 적용 범위로 두게 되면 언어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재조명 가능하다(예. 시빅의 종특수적 모형화장치)(Ibid.: vii).

29) 제 1 번역유형에 대한 영어 표현은 intersemiotic translation이다(Petrilli 2003: 19). 기호작용(the sign process/ activity)을 세미오시스(semiosis)라고도 칭하기 때문에 기호작용에 대한 수식어 semiotic과 사이성을 뜻하는 접두사 inter- 두 요소의 결합관

역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호체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역적 과정들 (“translative processes across two or more sign systems”)(Ibid.: 19)을 가리킨다. 상이한 기호체계간이라는 발생조건이 있으며, 기호(성립)에 본질이 되는 일련의 번역적인 과정 자체가 현상적으로 존재하거나 관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inter-와 semiotic의 결합에서 일종의 세미오시스 사이의 번역적 작용으로도 이해<sup>30)</sup>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세미오시스<sup>31)</sup>를 고려하면, 세미오시스 자체가 삶, 즉, 생명과 동시 발생 또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기호체계로서) 상이한 성격의 생명 영역/ 작용 간의 상호작용 또한 세미오시스 간의 번역이자 기호작용간 번역으로 볼 수 있다. 이 번역유형이 생명계 전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마치 종특수적인 인간만의 문명 세계를 발전시켜 온 인간의 문화기호계와는 동떨어진 것(예. 생물, 동물, 미생물, 무생물 등이 등장하는 일종의 원시적 활동)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생명(작용)과 관련된 모든 존재(따라서, 종 전체와 개체 모두)가 포함되며 또한 적용된다. 인간기호계(the Anthrosemiosphere)와 문화기호계(the Cultural Semiosphere) 또한 이러한 전체로서의 생명기호계(the Biosemiosphere as a whole)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고유한 특성과 특질들을 인정하되 독립적, 독립적 분석이 아닌 동시적, 유기적, 진화적, 포괄적 의미망을 고려한<sup>32)</sup> 전체-부분 사이의 역

계를 감안하여 기호작용간 번역이라고 잠정적으로 설정하였다.

- 30) 여기서 이해라 함은 일종의 해석(interpretation)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맥락에서 해석적(interpretive)이라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인지적, 감성적 해석의 활동(interpretational activities)과 동의어라기보다는, 후자를 포함할 수는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기호 자체의 해석작용, 즉, 열린 구조의 의미의 해석망들 속에서 해석체(some interpretant)가 필수적으로 개입하는 번역적 성격(the translative nature)을 가리킨다.
- 31) 좁은 의미의 세미오시스는 기호작용의 최소 기본단위로서의 기호 성립과정 그 자체를 가리킨다(the sign process itself as a semiosis). 물론, 이러한 미시적 차원에서의 세미오시스 또한 번역(translation), 또는 엄밀히 말해서, 번역적 과정(the translative process)이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세미오시스를 미시적 번역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번역은 구조적 요소이자 메커니즘이며 이에 따라 번역 단위, 범위, 전략 등의 영향 하에 세미오시스는 유형, 영역, 예시 상의 무한대적인 다양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으로는 삶/ 생명(life) 자체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32) 예를 들면, 인류는 어느 시점에서든 종 전체로서나 개체로서나 생물학적인 생명작용

동적 해석이 필요하다. 본고는 기호작용간 번역을 제 1 번역유형으로 상정한다.

생명계(the living world)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호작용간 번역과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구별되어야 하는 두 번째 번역유형은 기호작용 내부적 번역(endosemiosis translation)이다. 기호작용 내부적 번역은 하나의 기호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번역적 작용(들)이다. 어원학적으로 endo- 즉, 한 세미오시스의 내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본고는 이 번역을 제 2 번역유형으로 상정하겠다.

기호작용 내부적 번역과 기호작용간 번역 유형을 모두 고려한 생명기호계 내에서도 인간기호계 자체는—단순히 종특수적 상이성에 기인하는 것만이 아닌—기호학적이고 기호작용적인 차원 모두에서 그 특이성을 가진다. 기호작용을 경험하고 (재)생산하고 (기호적으로) 해석하는 활동은 생명기호계 내의 다른 (기호적) 존재들에서도 나타나지만, 기호(작용) 자체에 대한 메타인식론적인, 즉, 메타기호적인—그리고 동시에 메타기호작용적<sup>33)</sup>인—능력은 현생인류인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자질이자 속성이다. 번역의 구성요소적 양식(a constitutive modality)으로서의 속성 및 기능을 고려하면 인간은 메타번역적인 존재(이자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메타) 세미오시스는 인간 고유의 기호계, 즉, 인간기호계가 발생, 진화,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조건이자 생명기호계에서는 관찰 불가능한 독특한 번역유형들의 발생, 진화가 가능하도록 돕는 주요 근본능력 중 하나다. 인간은 인간고유의 기호작용적 번역을 유형적으로 생성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하위 유형화를 진화적인 방식으로 발달시켜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 3 번역유형은 인간기호작용적 번역으로 상정 가능하며, 이는 인간기호계 내의 고유 번역유형이다.

광의의,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언어(linguaggio/ langage)를 인간기호계 내에서 고려하게 될 때<sup>34)</sup>, 이러한 언어의 발생/ 존재는 생명기호

---

의 역학(the biological dynamics of life)이 그 존재의 전제조건이자 (생명/ 의미/ 세미오시스)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심지어 인간 고유의 기호 활동의 산물로서의 문화 형태나 규약이 변형 또는 소실되는 경우에도 생명기호계 내의 기호작용, 즉, 삶의 세미오시스는 필수 요소로 남는다.

33) 소쉬르적 발화기반 언어기호(signs of verbal language) 중심의 기호관을 초월해서 생명 기호작용의 전지구적, 전체적 범위에서의 이해를 강조한 시벽에 따르면 메타세미오시스(metasemiosis)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기호학은 메타세미오시스, 즉, 메타기호작용적 능력을 발전시킨 결과로서 성립, 발전되었다(Ponzio 2008).

계 내의 기호작용간 번역, 즉, 제 2 번역유형을 인간기호작용적 번역-인간고유의 세미오시스적 번역-중에서도 기호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Ibid.)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함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 기호간 번역을 제 4 번역유형으로 상정하겠다(cf. 세미오틱스간 번역).

기호와 기호 간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기호간 번역은 언어의 발생지점과 직결된다. 여기서 언어라 함은 발화성기반 언어를 하위 개념으로 포함하지만 널리 통용되는 (협의의) 개념인 “발화성 언어 = 언어 자체”와 같은 공식을 탈피 및 비판하며, 총체적이고 일반적인 광의의 언어<sup>35)</sup>로서 인간의 종특수적인 모형화 장치(the species-specific modelling device)를 가리킨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전체적 의미의 언어가 개입되는 언어간 번역(interlinguistic translation)은 야콥슨의 언어간 번역(interlingual translation), 보다 상세히 말하자면, 특정 개

34) 광의, 협의의 막론하고 언어에 대한 연구와 논의에서 그 고려 범위는 인간기호계와 연관된다(Petrilli 2003: 19).

35) 일부 특정개별어들 중에서는 각기 다른 범위와 유형의 언어들을 어휘적 층위에서 기호 외형적으로 구별해서 실현시킨다. 예를 들어, 광의의 총체적, 일반적 개념의 언어는 이탈리아어로 *linguaggio*라고 칭하고 프랑스어로 *langage*라고 칭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한 역사적 맥락 내에서 탄생, 자연언어의 한 예로 존재하는 개별 언어는 이탈리아어로 *lingua*, 프랑스어로 *langue*라고 칭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형용사형은 (영어로) *linguistic*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그 대신에 *lingual*로 나타낼 수 있다. 영어에서 두 경우 모두에 대해 *language*로 그리고 그 형용사로 *linguistic*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석 상의 혼란과 오류의 가능성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페트리리의 제안을 따라, 일반적 개념의 언어(*linguaggio/ language-in-general*)는 그 영어 형용사로 *linguistic*을, 역사특수적 자연언어의 개별어 실체인 언어(*lingua/ historical-natural language*)는 그 형용사로 *lingual*을 택한다(Ibid.: 18-20). 예를 들어, 발화성기반 언어(*verbal language*) 내에서 발생하는 발화기반어 내부적 번역(*endoverbal translation*) 중에서, 역사특수적 개별어 내부에서 발생하는 특정 개별어 내부적 번역(*endolingual translation*)은 총체적 언어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내부적 번역(*endolingual translation*)과 구별이 가능하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 영어 형용사의 파생 접미사와 다르게 명사의 관형격 조사(-의)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관형격 조사는 *-istic*과 *-al*이 가져다주는 의미적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다. 한자유래 접미사(-적)의 경우도 의미 상의 차이를 변별적으로 생성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용어에서 사용 가능한 번역전략은 해당 용어의 명사 범주 내에서 외표적으로 구체화(*explicitation*)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별어간 번역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 5 번역유형인 언어간 번역은 비발화성 기호들(non-verbal signs)을 대상으로 한 발화성 기호들(verbal signs)로의 번역, 발화성 기호들을 대상으로 한 비발화성 기호들로의 번역, 그리고 상이한 비발화성 기호체계들 사이의 번역 모두를 포함한다(Ibid.: 19-20). 언어의 범위를 기호작용 내에서 기호작용과 그 유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상정하는 것은 단순히 기호학적 방법론의 한 방편이 아니며, 오늘날 점점 복잡해지는 언어 현상의 학제간 연구를—인식론적, 방법론적 단절 또는 편재화 없이—체계적이면서 연속확장적인 방식으로 실행<sup>36)</sup>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언어간 번역이 성립할 수 있는 최소 기본조건은 위에 기술한 포괄적 의미의 일반 언어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언어들이 근본적인 기호 기반 번역의 영향 하에 있다면 그 경계 사이를 넘어서 번역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이한 양식과 성격의 언어들 내부적으로도 일종의 번역 활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현상의 특징과 번역 전략들은 상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언어 내부의 번역을 하나의 독특한 번역 유형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페트리리는 이러한 번역 유형을 endo-와 linguistic이라는 표현을 채택하여 endolinguistic translation(언어내부적 번역)이라고 명명한다(Petrilli 2003: 19). 즉,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범위에서 고려된 언어의 한 예가 있고, 그 내부에서 기호기반의 번역적 과정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번역적 작용들을 언어간 번역의 예들로 간주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제 6 번역유형으로 상정한다.

언어적 번역이 발화성 기호체계들(verbal sign systems)과 관련해서 발생할 때, 이러한 번역유형은 발화기반어<sup>37)</sup> 내부적 번역(endoverbal translation)으로

36) 언어현상의 다차원성에 대한 기호번역학 기반의 언어과학적 학제간 연구는 아직 많이 실행되지 않았다. 최근 연구의 예로, Lim, E. (2013)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37) 발화기반어는 언어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verbal language 또는 verbal signs와 같이 verbal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언어유형에 대한 한국어 용어—엄밀하게 말해서 영한번역표현—들이 흔히 non-verbal language 또는 non-verbal signs와 같은 표현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측면을 외현화하기 위해 구어 또는 언어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용어화된 것은 그 맥락 내에서의 신속한 이해를 이끌어낸 반면에 일반 언중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또는 불확정적인 의미망 생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verbal language가 구어만이 아닌 발화성에 기반한 문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예. 비발화성 언어적 기호체계들과 구분되는

하위분류 가능하다. 여기서 발화기반어는 발화성 기반 언어의 줄임말로 파악될 수 있으며, *within a verbal language*, 즉, 발화성기반 언어의 범위 내부에서 발생하는 번역적 작용을 가리킨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endolinguistic*과 *endoverbal*을 차원적으로 나누어 두고 위계적으로 상세화된 언어 패러다임에 준하여 번역을 하위유형화하는 것은—단순히 기호학 담론의 특수화를 위한 페트리리의 (암묵적) 전략이 아니라 언어학, 기호학 및 언어과학 제반 분야들 (*language sciences*)이 학제간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유용하고 필수적인 메타인식론적 조건<sup>38)</sup>이다. 따라서 *endoverbal translation*과 제 6 번역유형을 상세 구분한 것은 많은 측면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발화기반어 내부적 번역은 여기서 제 7 번역유형으로 상정한다.

발화기반어 내부적 번역은 크게 두 개의 상이하지만 상호연관된 번역유형들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두 번역유형은 각각 특정 개별어간 번역과 특정 개별어 내부적 번역으로 명명 가능하다. 페트리리는 이 번역유형들을 *interlingual translation*, *endolingual translation*으로 칭하고 있다(Petrilli 2003: 19). 앞서 언급하였듯이, *interlinguistic/ endolinguistic* 중심의 번역 범위와 비교할 때 이미 단계 상에서 일반성 대 특수성, 총체성 대 개별성, 인지개념성 대 역사상황성 등으로 명확한 특질적 대비를 보이는 *interlingual/ endolingual translation* 두 유형은 제 8 번역유형이면서 동시에 두 개의 상호 대립되는 하위유형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 8-1 번역유형, 제 8-2 번역유형으로 따로 나눈 뒤에 위계적 분류 단계 상에서는 함께 취급하기로 한다. 발화성기반 언어의 범위 내에서 번역적 과정이 발생할 때, 실제로 번역이 구체화되는 언어사용 환경에서는 특정한 역사문화적 맥락

발화성기반 언어적 기호체계들을 가리킬 때), *non-verbal sign systems*가 비언어적 기호체계가 아니라 언어적 기호체계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발화성기반 언어적 기호체계들과 구분되는 비발화성 기반 체계지만 여전히—넓은 의미에서—언어적 성격을 띠는 기호체계들을 가리킬 때). 따라서 *verbal*을 단순히 영한 번역이 필요한 영어 어휘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한국어대응어로 ‘언어의’, ‘구어의’ 두 표현만 지목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38)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틀 및 방법론과 관련된 주요 개념 및 범위 체계화 작업은 페트리리가 철학화(*philosophizing*) 목적의 주관적 (메타) 해석을 지양하고 과학적 연구의 긍정적, 효율적 발전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탐색과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속에 놓여진 인간자연언어의 개별적 실례(들) 사용이 동반된다. 일반적으로 a (particular) language/ 한 (개별) 언어 또는 (particular) languages/ (개별) 언어들 이라고 칭하지만, 페트리리는 개념 및 용어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a (special) historical-natural language/ (특수) 역사적-자연적 언어 또는 historical-natural languages/ 역사적-자연적 언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Ibid.: 18-20). 다시 말해, 특수한 역사적 및 자연적 맥락 속에서 실제화되고 구체화된 개별어(들) 실례/ 모두를 가리킨다. 이들은 이탈리아어로는 lingua, 프랑스어로는 langue라고 차별화하여 명시하는 방법으로 linguaggio/ langage와 어휘 및 의미 상에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특정 개별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러한 특정 범위와 양상을 가지는 언어들에 지칭하고자 한다. 인간 기호계 내에서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특정 개별어들이 발생, 존재, 소멸 및 발전을 거듭해 왔다. 번역유형론의 관점에서는 특정 개별어들이 자신들의 경계 내부에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계 사이에서 번역적 과정들을 실행한다고 본다.

제 8-2 번역유형인 특정 개별어 내부적 번역은 크게 세 개의 상이한 하위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점은, 번역유형 연구에서 특정 개별어의 경계범위 내부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기호적 작용으로서의 번역적 과정에 기반한다면 좀 더 상세하고, 고유한 특수성을 띠는 하위 번역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다<sup>39)</sup>는 점이다. 특정 개별어의 내부에서는 최소 세 가지의 상이한 번역유형들이 관찰된다. 첫째, 양매체간 번역, 둘째, 양국면간 번역, 그리고 세 번째로 양층어간 번역을 들 수 있다. 페트리리의 용어에서는 각각 diamesic/ diaphasic/ diglossic translation<sup>40)</sup>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직접

39) 페트리리의 체계화된 번역(적 과정)에 대한 위계적 도식이 없다면 (예를 들어) 기호 작용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이나 양층어간 번역(diglossic translation)이 왜 모두 번역의 유형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번역 자체의 예들로 간주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0) 각 용어에서 mesic은 매체(media)를 뜻하고, phasic은 국면(phase) 또는 단계를 뜻하며, gloss-는 (혀 또는) 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di-/ dia- 형태소는 양분화된 양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diamesic translation은 동일한 특정 개별어를 사용하는 환경 중에서도 상이한 매체(예. 구어적/ 문어적 매체) 양식 간에 발생하는 번역적 과정을 가리킨다. diaphasic translation은 상이한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사용역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번역적 과정 또는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영어로 register라고 칭

적인 한국어 대응용어들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축자적 번역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유형들을 제 9-1 번역유형, 제 9-2 번역유형, 제 9-3 번역유형으로 설정하고, 상정된 세 가지 용어들은 한국어 용어 사용 상에서의 불필요한 과도해석 또는 이의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페트리리가 명시한 각각의 조건(즉, between written and oral; across registers; between a standard language and a dialect)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부가) 번역을 하도록 한다(즉, 문어-구어간 번역; 언어사용역간 번역; 표준어-지역어간 번역<sup>41)</sup>).

지금까지 페트리리의 기호기반 (메타) 번역개념이 제시하는 기호 단일체 및 전체의 번역적 속성과 번역적 구성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생명의 의미작용 영역(즉, 생명기호계) 그리고 인간 고유의 의미작용 영역(즉, 인간기호계) 모두를 고려한 범위에서 페트리리가 주장한 번역의 주요 하위유형들을 소개하고 유기적 위계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간략히 기술하였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번역의 복잡다양한 하위유형들을—단순한 관념적 또는 개념적 소개의 수준을 넘어서—언어과학적 분석 및 기술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그 체계적인 도식화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구조적인 유형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3.3 번역 유형의 체계적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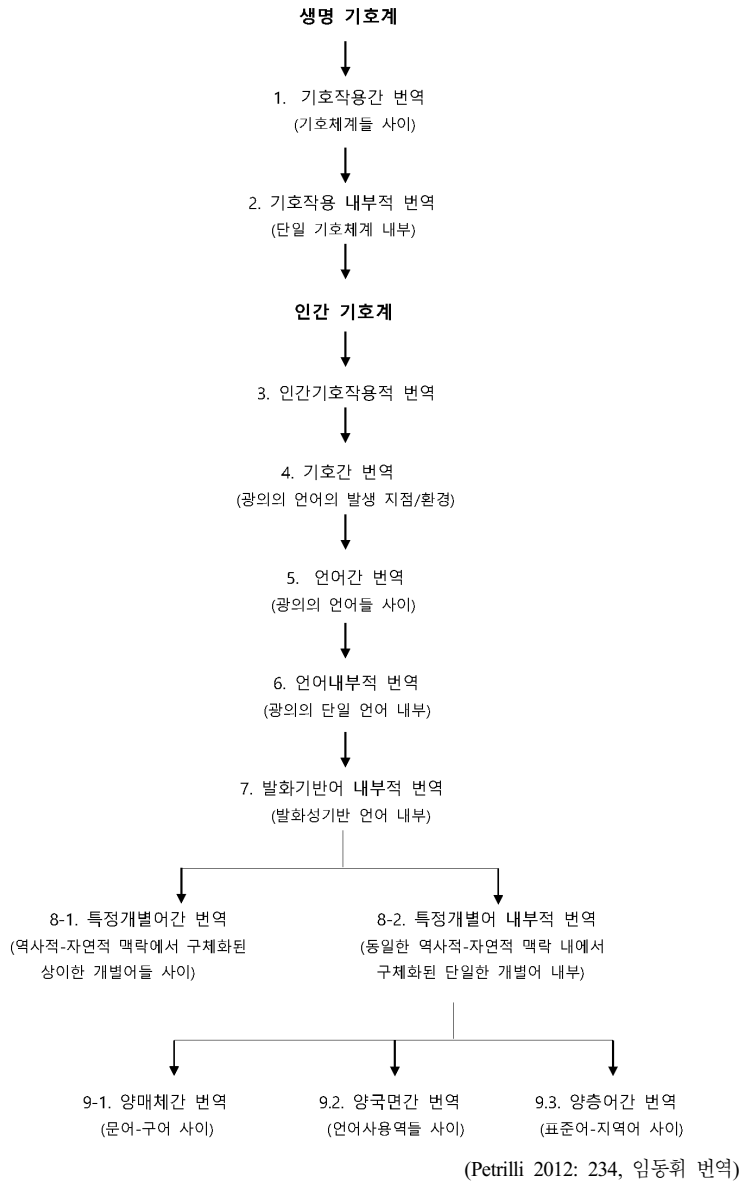
하는 사용역이 주로 사용된 상황에서 상이한 사용역 국면/ 단계라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선택적 또는 조작적 기호 사용/ 변용이 되는 경우들을 기호기반의 번역적 과정의 한 하위유형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diglossic translation은 양층언어(diglossia) 사용현상을 기호에 기반한 번역적 과정을 중심으로 재분석하여 번역유형 체계 내로 배치시킨 것으로 파악된다(Petrilli 2003: 19). 여기서, 양층언어(diglossia)는 둘을 뜻하는 di-와 언어를 뜻하는 gloss가 결합된 용어로, 퍼거슨(Charles Ferguson)이 사회언어학적 맥락에서 용어로서 소개하였다(Ferguson 1959). 양층언어는 동일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상황 또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언어들을 가리킨다(참고로, 이중언어/ bilingualism와 구별 필요). 예를 들어, 대만에서 표준어와 지역어(예, 공용 중국어와 민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집트에서 표준아랍어(문어)와 지역어(구어)를 사용하는 경우, (과거) 조선시대 한자(어)와 토착어(구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층적 차이와 형태적 차이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 41) 상세한 설명은 Petrilli(2003: 19)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 a dialect는 표준어-비표준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지양하고 사투리의 이데올로기적 주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지역어라고 잠정적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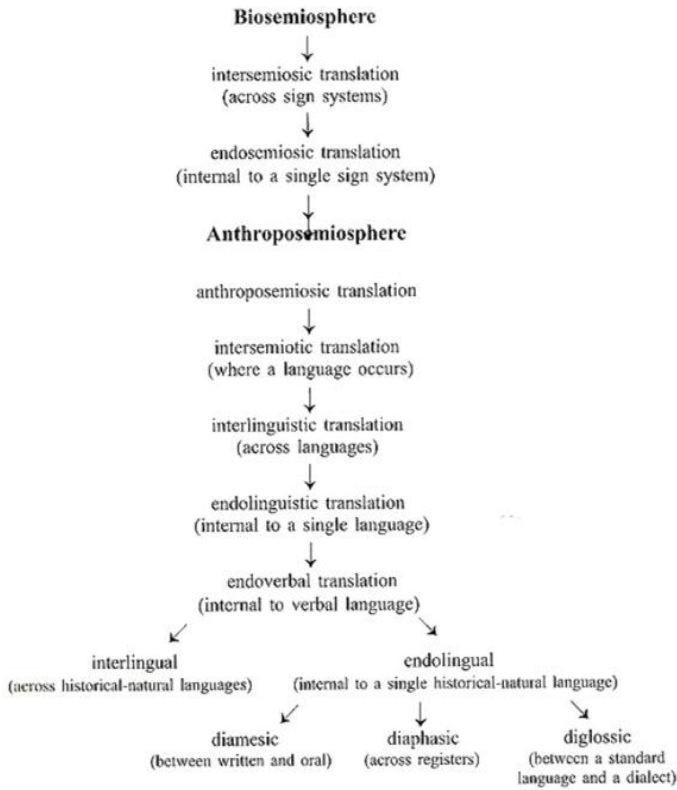
기호의 번역적 과정 자체에 기반한 페트리리의 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 현상의 전체 범위 평가와 번역유형의 상세 기술을 동시에 고려해본 결과, 기존의-발화성기반 언어 차원 내에서 특정 개별어간 경계면-기준에 따른 번역 정의 내리기 및 유형화 작업에 비해 월등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상호유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메타) 번역적 기술과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페트리리의 번역 패러다임과 (메타) 번역론을 충분히 고려할 때, 번역에 대한 보다 통찰력있고 종합적이면서도 면밀한 현상 및 원리 이해력을 획득할 수 있음이 발견된다. 생명기호계라는 거시적 차원의 전지구적/전체적/우주적 기호작용 영역에서부터 인간기호계 중에서도 상황간, 지역간, 계층간의 (비가시적이나 미묘하게 작용하는) 상이한 미시적 기호작용 영역까지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번역 일반에 대해 과정적, 현상적, 작용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 또는 고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페트리리식 (메타) 번역 패러다임의 큰 이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들은 기호, 언어, 번역, 의미 등의 인간/자연 현상 및 체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자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되고 적용이 용이한 것들인가? 페트리리의 (다소 추상적인) 번역유형학적 분류와 그에 따른 다양한 하위번역유형들은 소수의 특수한 초기호적 문식력을 갖춘 이들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타지식적 전유물이자 기호조작적 도구-또는 무기-인가? 이 절에서는 페트리리의 (메타) 번역론이 전제 또는 제시하는 (메타) 인식론적 통찰력과 (접근) 방법론적 이점들 외에도, 하위번역유형들에 대한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도식이 제공됨으로써 비로소 그 메타번역적 해석은 하나의 견고한 메타지식이자 메타규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과도하게 의도된 시각화(visualization) 목표는 오히려 연구대상인 현상과 과정 자체에 대한 왜곡된 환원주의와 과일반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내부적 체계성과 논리적 연결망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시각중심의 도식화는 해당 패러다임 또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보다 견고하고 조밀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체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도식화는 실제로 가능한가?

페트리리에 따르면, 체계적-위계적인 번역유형학적 분류는 다음 그림들과 같이 도식화된다(Petrilli 2003; Petrilli 2012: 234; Lim E. 2013: 64 재인용).

<그림 1> 페트리лли의 체계적 번역유형 도식



<그림 2> 페트리리의 번역유형 도식 (영어)



(Petrilli 2012: 234, Lim, E. 2013: 64 재인용)

일차적으로 제시한 <그림 1>은 그 구체적인 도식을-본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현대 한국어로 잠정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2>는 페트리리 (2012: 234)의 도식을 기반으로 하되, Lim, E. (2013: 64)에서 인용한 도식 (Petrilli 2003: 19)을 재인용한 것이다. 페트리리는 번역유형 정립과정에서 (개방성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연결망을 통해 관계성을 띠는) 기호작용 영역들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한 체계적 도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앞 절에서 다루었던 관련 개념들과 하위유형들이 (개인의 관념적 철학화 범위를 훨씬 넘어) 인간 현상, 문화현상 그리고 심지어 자연현상과 생명작용 연구에까지 다양하게 적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가시화된 정보를 통해, 페트리리의 메타번역 개념과 패러다임이 근거 없는 철학화나 구조 없는 상념이 아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형의 타당성 및 적용성에 대한 조사 및 (재) 분석/고찰 작업은 지면 관계상 후속연구의 주요 과제로 남겨둔다.

이 장에서는—퍼스의 삼원적 기호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주요 기호작용적 속성(the key semiosis-internal property)으로서 소개되었던—번역성(translativity)이 가지는 초기호적 적용 능력과 초학문적 가치를 메타번역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찰력있는 학제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페트리리의 번역론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특히, 페트리리가 가진 기호 자체의 근본적 내부 메커니즘에 대한 메타기호적/초기호적 문식력이—과도하게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메타해석으로 귀결되지 않도록—이론화 과정에서 논리적 체계화와 가추적 사유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메타번역이론의 메타과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정해 보았다. 이에 따라, 기호 기반의 번역 개념을 조사해서 살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번역의 정의를 하나로 도출, 명제 형식의 공식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한 기호의 의미 생성을 위해서 해석체 역할을 담당할 다른 기호(전달체)의 해당 세미오시스 영역 내로의 이동 및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퍼스적 기호관 내에서 새롭게 나오나, 이를 번역이라고 주장한 퍼스의 통찰력을 빌려와 기호기반 “번역”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론화시키고 (발화성 기반 언어를 초월하여) 생명작용 범위 전역에서 번역의 주요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페트리리의 메타번역 연구는 번역학적으로 새롭고 큰 함의를 가진다. 다음 장에서는 페트리리의 번역 개념과 메타번역 연구가 오늘날의 인문학과 미래의 초인문학(transhumanities)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논하겠다.

#### 4. 기호기반 번역과 인문학

이제 제 4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기호기반 번역 개념을 (인문학과 인간과학을 포함하고 생명과 소통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한) 21세기 초인문학과 관련시켜 생각해보고, 페트리리식 번역 패러다임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 및 이론적 시사점에 좀 더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과연 근본적인 의미에

서의-기호와 기호작용에 기반한-번역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유형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페트리리의 (메타) 기호론과 위계적 유형화가, 예를 들어, 언어학과 번역학, 언어 (및 인지) 심리학, 언어교육, 문화연구, 언어경관 (linguistic landscapes), 공공기호의 장소기호학(Geosemiotics of public signs), 광고 (언어) 분석, 멀티미디어 제작 및 번역, 비평이론, 문학작품 텍스트 분석 등에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활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또는 이론틀 상의 이점이 있는가? 이에 대해 단언하자면, 페트리리의 기호기반 번역론이 기호학, 언어학, 인지과학, 문화연구, 비평이론, 멀티미디어학, 인간/ 동물 생명과학, 생태학 등의 다양한 (그리고 독립된) 분과 학문 영역과 어떻게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과 실용적인 효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최소한, 오늘날의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어렵다<sup>42)</sup>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자 기정 사실이다(cf. Petrilli 2003). 그러나 그러한 학문적 현실이 페트리리의 (메타) 기호 인식론과 (메타) 언어작용 인식론-총괄하여 (메타) 번역 인식론-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분과학문(transdisciplinary)적인 이론적 가치와 실제적 유용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학문적 가치가 낮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론적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쟁점은 하나의 세부적이고 독립된 분과학문영역 내에서 조사 및 검증되어야 하는 특정 번역론의 학문적 정당성과 신뢰도 및 실증적 활용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문학과 인간과학,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 (과학/ 철학) 연구가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에서

42) 페트리리의 번역 개념과 페라다임을 기호학적으로 기술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해서 번역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유형화되고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실증주의, 실용주의의 가치가 자본주의 경제 논리와 만나 모든 것을 가용성의 정도에 따라 쉽게 값 매김하는 전지구화시대에, 페트리리의 번역론을 단편적으로 읽을 경우에 그 적용 가능성을 생산적으로 구체화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 페트리리의 주요 기호학 이론들이 생명 기호학적 윤리 또는 타자-차이의 의미(이해)에 대한 담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마치 페트리리의 (메타) 번역 개념은 실제 번역 현상 및 작용과 무관한-따라서 허먼스의 주장처럼, 시도해보는 것이 우매하게 보일 수도 있는 수많은 은유적 개념들 중 하나로서-페트리리 개인의 철학화 대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융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상호긍정적인 방식으로 발전—그리고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론적 당면 과제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당장에 어휘 상에서 번역을 다루고 있고, 도식적 측면에서 체계적 유형론을 논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날 많은 학자 및 전문가들에게 익숙한 번역의 통념 및 관습적 패러다임을 앞세워 페트리리의 번역의 적확성과 실용성에—사전연구가 부재한 채—쌍수를 들거나 회의적 시선을 던지는 것은 출발점부터 그 의미망과 해석 범위가 완전히 다른, 이해 상의 시행착오<sup>43)</sup> 또는 소통의 단절의 예로 그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현재 학계의—주요 이론(들)의 동향이나 문화적 경제성, 생산성의 논리에 이끌려—(언어) 현상 분석 작업(과 그 결과물)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서 (가치중립적이고 주관적 해석이 배제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활동으로 간주하고, (메타) 번역에 대한 인문학적, 초학문적 논의는 마치 해석자의 주관적 가치와 믿음으로 점철된 과도한 은유적 확산 또는 순수철학적 담론 창작으로 (단순 왜곡하여) 보는 경향 또한 (언어/ 기호) 과학사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환경과 가치, 삶의 방식과 원리 자체가 변화되고 변용되며 심지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느 분과학문도 그 이론적 가치와 학문적 유용성이 인간 및 지구의 번역 양상 및 작용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발전, 고취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전지구화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여파에 따라 번역의 범위와 유형, 가치 또한 실용성, 수익성, 물질적 교환 가능성, 소비자/ 독자 번역효과 등과 같은 현재 인간기호계 내의 물질적 세계의 작용 조건과 기준에 따라 한정되어지고 심지어 기준화, 표준화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번역은 정말 언어와 텍스트의 부산물이고 파생상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오늘날의 번역학의 열기와 발전은 변용과 변형을 통한 정보의 대량 전파와 전지구적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적 행위

43) 물론, 이러한 이해 상의 상이성, 즉, 주관적인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과학적 방법론 상의 오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연 법칙 중 하나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실은 근본적인 기호 존재론과 기호 작용 내에서도, 그 메커니즘의 핵심 열개가 기능/ 작용할 때에 번역이 구조적으로 존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실례다. 현상학은 이러한 관찰을 (번역 메커니즘 중심이 아니라) 현상의 속성 중심으로 기술, 설명하려고 한 이론적 노력의 산물로 간주 가능하다.

의 산물일 뿐인가? 한편, 언어학의 과제는 실증주의적인 언어활동 양상의 기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가치중립적 과학자의 태도가 최고의 선이자 최적의 자세인가?

이 시점에서 인문학적 접근과 인간과학적 접근 모두가 직시해야하는 세 가지 쟁점이자 사안이 드러난다. 첫째, 인문학에서 과도한 (메타) 해석은 의미의 폭과 깊이를 증가시킴으로써 인간 문화의 창조성과 텍스트성은 심화시킬 수 있으나,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유하고 재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그 신뢰도 및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해석의 문제와 직결되나, 논쟁을 위한 논쟁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며 동시에 인간 문화가 인간적일 수 있는 중요한 해석 상의 논제이다. 이는 문학 또는 철학이라는 분과학문의 테두리 내에서는 제 나름의 소통세계, 즉, 문화적 움벨트(Umwelt)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과학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및 효율적인 소통 방법을 위해서는 해석에 대한 메타기호적 (재)고찰이 필요조건으로 존재 및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인문학과 인간과학 영역의 접경 지역에 존재하는 언어(과)학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언어활동의 실례들을 다룬다는 이유로 실증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기술과 그 자료에 기반한 메타 분석을 주요 기본 과제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메타인식론, 인간/ 인지 과학, 다차원적 번역학, (생명)기호학 등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간 소통 방식 및 패러다임 자체의 진화(예. 멀티미디어, 소셜네트워크, 비발화성 기호체계를 활용한 다중양식적 텍스트(texts of multimodality) 생산, 하이퍼텍스트의 전지구적 이용 및 확산, 사용자제작 콘텐츠의 실시간 공유 및 확산, 언어경관의 전지구적 환경 및 의미적 진화에 대한 인식 발달, 대중 개개인의 다중양식성(multimodality) 기반 의미생성 및 재창조 활동) 등과 같은 인류사 (그리고 지구생명역사) 최초의 새로운 조건들이 일상의 영역에서 공유되고 작용하게 됨으로써, 과연—엄밀히 판단할 때, 지극히 인간감각 중심적이고 특히 성인의 시각 및 청각적 감각 중심으로 진행된—실증적 기술<sup>44)</sup>만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며 과학적인 신뢰도가 가장 높은 연

44) 현대 언어학 이론은 소쉬르 이론의 직, 간접적인 영향으로 기표-기의를 결합 공식에 따라 언어(과)학의 제 현상 및 과정, 작용을 기술, 분석, 분류하는 방법론을 우선적으로 취해왔다(예외. 비판적 담론분석, 퍼스기호관에 영향을 받은 특정 이론 및 학파들, 등). 실증주의(positivism)라는 방법론적 패러다임 이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상

구 방법인지에 대한 반문과 함께, 기존의 이러한 연구방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및 한계를 가시화시키려는 학문적 시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언어학사를 위한 메타인지적 분석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해석의 범위와 차원에 대한 견해 차에 기인하는 (메타)세미오시스적 논쟁사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번역을 발화성 기반의 언어(verbal language) 중에서도 특정 개별어들(certain particular languages) 간에 나타나는 기표 중심의 메시지 실현 과정 및 작업-결과 및 현상-으로 한정지어 정의 내리고, 그러한 번역 개념에 따라 모든 번역학이론 및 메타번역적 인식론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 및 태도는 오늘날 실제 전지구적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향후 발생할) 모든 복잡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생명작용적 번역현상 및 번역적 과정 전반에 대한 모든 통찰력있는 고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흥미롭게도, 세 가지 쟁점 중 마지막 사안 또한 해석의 문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메타) 인식론과 (메타) 해석학의 문제가 메타번역적 패러다임을 중심축으로 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자면, 궁극적인 해석의 문제, 즉, 의미 (생성/처리) 과정과 범위의 문제가 번역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깊은 뿌리를 드러낸 것이다. 임동휘(2014a)가 역설하듯이, 이러한 해석 본연의 문제는 철학 또는 어휘 의미론의 문제가 절대 아니며, 따라서 메타 해석 또는 과도 해석에 의존한 철학화가 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해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초학문적 고찰의 필요성은 놀랍게도

---

이한 인식론이 내재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첫째는 일원론(monism)이고 둘째는 물화(reification)중심주의다. 상세한 관련 철학이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인식론적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첫째 일원론의 경우, 언어가 (그 내부 구성요소 및 구조의 다원성/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하고 통일된 개체/ 단위로 보는 태도를 말하고, 둘째 물화중심주의는 관련 세부 현상 및 개념을 다루면서 감각적 접근 및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각각의 실체들을 물질과 같은 물리적 개체들처럼 취급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오늘날 미시적, 거시적 단계에서의 각각의 과정 및 역동적 메커니즘들에 대한 이해의 폭과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관념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현 세계에서 언어의 총체적 실체 및 개별 구성요소 및 참여 메커니즘들이 독립적이고 감지 가능한 단일체로 통약 불가능(incommensurable)하며, 언어작용 및 활동의 속성 일반이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절대적 물질성을 기반조건이자 구성요소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기호 본연의 문제, 더 상세히 밝히면, 번역의 문제들(problematics of translation)을 인문학과 인간과학 연구자들에게 제시한다. 따라서, 본고는 페트리리가 강조한 “번역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sup>45)</sup>”(Petrilli 2012: 231)라는 명제에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번역론과 인문(과)학을 동시에 고려할 때, 번역에 대한 수많은 현상 설명과 메타인식론 설정의 문제들이 그 내면에는 근본적인 해석의 문제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특정 분과학문 영역 내에서 실증적이되 제약적인 번역 연구를 심화, 확대하고 있는 여타 학자들과 달리, 페트리리는 특수하고 상세한 방법론을 고안하고 적용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지구적 움벨트 내에서 언어와 소통을 공유하고 확장시키고 있는 주체이자 지구 공동체의 운명에 (생명) 기호 윤리학적 책임,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특수한 존재<sup>46)</sup>로서 현존하고 있는 현생 인류

- 45) 본문에서는 “To translate is firstly to interpret”(Petrilli 2012: 231)라고 명시한다. 페트리λλι의 (메타)번역론에서 특히 해석(to interpret; interpretation; interpreting) 관련 명제들과 표현들은 퍼스의 기호 패러다임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어떠한 기호든—따라서 모든 기호는—의미를 도출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호가 필요하며, 또 다른 기호가 해당 기호를 위해 본디 영역(움벨트) 경계를 넘어—즉, trans-의 과정을 통해—해석체(an interpretant) 역할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의 기호작용(the sign process/ semiosis)이 이루어진다. 즉 번역은 기호 그 자체의 구성요소이며, 따라서 모든 기호활동(the sign activity/ semiosis)들은 그 내재된 번역적 속성(the translative nature)에 의해 일종의 번역 과정(a translational process)으로서(만) 존재(가능)성을 가진다(Ibid.). 여기서 해석체는 해석의 주체, 즉, 해석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해석의 구성소, 또는, 해석의 과정이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각각의 의미(과정)의 본체(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해석과 번역을 동일 선상에서 논의하게 될 때, 소쉬르식 기호학(semiology)에 기반한 단순 탈부호화(to decodify)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양하고 비판한다(Petrilli 2014: vi). 즉, 퍼스 전통의 해석 기호학(interpretation semiotics)을 소쉬르식 기호론에 기반한 탈부호화/탈코드화 기호학(decodification semiotics) 입장들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Ibid.: 4-5).
- 46) 이는 번역적 과정으로서의 기호작용들을 생명기호계 내에서 고려할 때, 인간기호계에 서만 나타나는 메타번역 능력과 직접 연관된다. 생물의 한 종(species)으로서 현생인류는—다른 생명체들에서도 나타나는—의미생성 및 해석, 즉 기호작용적(semiotic) 능력뿐만 아니라, 세미오시스에 대한 보다 상층위의 (즉, 고차원의) 세미오시스를 생성할 수 있는 메타 기호작용적/ 메타 세미오시스적(metasemiotic)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에 따라 인간을 기호학적 동물(semiotic animal)이라고 칭할 수 있다(Ibid.: 22). 본고는 더 나아가 현생인류는 호모 트랜스퍼렌스(Homo Transferens), 즉, 번역

전체의- 그리고 생명 전체의- 의미작용 과정/ 영역/ 체계/ 현상을 보다 올바르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 보다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미시적-거시적 노력의 일환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페트리리의 (메타) 번역론과 번역유형체계 도식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즉, 페트리리의 (메타) 번역 이론은 퍼스와 시빅, 웰비와 바흐친을 인용한 것이 주된 특징이 아니라, 기호 (작용) 기반의 (메타) 번역의 패러다임을 취함으로써 인문학과 인간 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넘어서 생명기호(윤리)학 전체를 아울러 고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번역성(translativity) 중심의 게슈탈트전환(Gestalt Switch)<sup>47)</sup>의 초석을 쌓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러한 시사점은 앞서 제기된 특정 분과학문 영역 내에서 페트리리의 (메타)번역론이 가질 수 있는 이론적 관련성, 충족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실제 인간기호계의 문화, 예술, 산업 및 일상생활 제 영역 내에서의 구체적 적용 가능성과 실용성에 대한 질문을 고려하는 부분조차도- 초학문적 번역적 인문학의 터를 우선 넓히고 다듬은 뒤에-(메타) 번역이론 연구자들<sup>48)</sup>과 전문가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인류 모

적 인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번역적 과정에서, 선택된 번역의 대상(속칭, 원천텍스트/ source text)들과 번역전략들의 구체적인 속성과 유형들이 무한히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호1 (번역 대상) & 기호2 (해석체) → 기호작용으로 세미오시스 형성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기호작용1 (번역 대상) & 기호작용2 (해석체 체계) → 메타기호작용으로 메타세미오시스 형성, 즉, (번역 기반) 세미오틱스 형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지과학 분야의 용어인 메타인지도 (단순 교육학적 맥락보다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좀 더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 47) 쿤(Kuhn)은 상이한 패러다임들의 통약 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은 패러다임 변화, 즉, 게슈탈트 전환으로 이어지며, 따라서 과학적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Kuhn 1970: 111).
- 48) 본 저자의 박사학위논문(Lim, E. 2013)은 페트리리의 메타번역이론을 적용하여 언어 및 문화현상으로서의 소유를 (가급적 분과학문적 해부없이) 초학문적이고 통섭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이면서도 다차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언어학(선택 개별어: 영어, 한국어), 인지과학, 진화 생물학, 발달 생물학, 발달 심리학, 뇌과학, 조음 음성학, 형태론, 인지의미론, (문화) 기호학, 문화인류학, 언어학사, 등 다양한 분과학문 영역을 번역적으로 탐색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연구과정과 내용 전체에 있어서 (메타) 번역적 속성의 메커니즘과 패러다임이 (초학문적인) 이론적 관련성과 충족성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성 및 활용도 또한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 내용 중 일부는 유럽언어학회(SLE, Societas

두가 함께 고찰하고 상세화해야하는 새로운 과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요약하자면, 페트리리가 구체화시키고 발달시키고 있는 기호 기반의 메타번역 이론과 번역 유형학은 그 패러다임 상의 새로운 가치와 메타기호적/초기호적 문식력, 탐구 및 적용 범위의 미시적-거시적 확장 가능성, 언어와 의미, 기호에 대한 보다 확장되고 총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유기적인 범위와 연결 메커니즘, 주관적 관념이 아닌 실천적-존재적-생명작용적 책임 과제로서의 (번역/기호) 윤리학 등 아주 많은 특징과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들 자체가 번역학, 언어학, 인간과학, 인문학 자체의 확장적 발전과 생산적 진화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기에, 그 해석성의 정도와 실용적 적용 가능성 여부는 아직 신진 학자들과 후속 연구세대들의 (이러한 특정 담론/문화/메타지식에 대한) 번역 여부 및 번역 방법, 그리고 번역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호에 기반한 번역 개념과 유형이 초인문학적 인식과 현상 그리고 과정과 범위를 이미-항상 연관시키고-또한 연결시키고-있기 때문에, 그 기본 메커니즘과 패러다임은 (마치 단백질 번역의 경우에 내재되어 있는 원자 자체의 역할처럼) 초인문학적 성찰과 융합적 통섭을 위한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실천 방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초인문학적인 가능성은 페트리리의 번역의 하위유형화 양상과 도식에 대한 질문(예. 생명기호계 영역 내의 추가 하위유형화 필요성, 인간기호계 영역 내의 추가 하위유형화 가능성, 각 유형에 대한 상세 설명과 실제 사례 소개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질문) 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며, 다양한 차원의 학제간 연구가 체계적, 비판적,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

Linguistica Europaea의 국제학술대회(스웨덴 스톡홀름, 2012)(Lim, E. 2012)와 세계기호학회(IA S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의 세계학술대회(불가리아 소피아, 2014)에서 발표되었다(Lim, D. 2014c). 2014년 세계학술대회의 세션 담당좌장은 페트리리교수가 맡았다. 기호 기반 메타번역이론 연구계획과 저자의 즐고에 대한 페트리리교수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수잔 페트릴리의 기호기반 (메타) 번역 개념과 그 유기적-위계적 유형화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퍼스, 시빅, 웰비 등이 주장한 삼원적인 기호 모형에 따른 전지구적/ 우주적/ 전체적 번역 (및 기호)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은 페트릴리의 기호론은 표면상으로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관념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 그 실체는 초학문적으로 중요한 이론적 함의와 인식론적 중요성 그리고 무한한 재고찰 및 (실제)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본적 (메타) 번역 개념은 퍼스의 해석체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시빅의 전지구적 세미오시스 범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할 때 번역은 생명기호계와 인간기호계 범위에서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유기적-체계적 분류가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메타) 번역 개념과 유형은 기존의 분과학문 중심, 산업 중심, 경제-문화 활동 중심의 번역관 및 번역론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기호(작용), 의미(생성과정), 언어(능력)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실천 및 탐구의 가능성은—(메타) 인식론적 선결 과제에도 불구하고—초인문학적 범위와 차원의 고려와 연구를 위한 원자적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번역에 대한 통념과 인식 범위를 초월하여 페트릴리의 메타 번역론과 번역유형을 충분히 고려하고 탐구할 때 비로소 번역 (과)학의 학문적, 실제적, 인식적, 문화적 지평과 위상도 올바른 (재)평가와 (재)정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가정하며, 더 나아가—기호 기반 (메타)번역 개념 및 유형론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과 비판에도 불구하고—페트릴리의 통찰력있는 초기호적 메타번역 패러다임은 오늘날과 미래의 필수 과제인 초학문적 (초)인문학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시사점들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 참고문헌

- 임동휘 (2014a) 「번역에 대한 메타번역적 접근: 기호, 인지 중심의 번역 개념」, 『코기토』 76: 299-338.
- Andrews, Edna (2014) *Neuroscience and Multilingualism*, Cambridge: Cambridge UP.
-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ha (eds) (2009)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 Bell, Roger (1998)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Longman.
- Brower, Reuben (ed.) (1959) *On Translation*, Cambridge: Harvard UP, 232-39.
- Chandler, Daniel (2007) *Semiotics: The Bas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obley, Paul, John Deely, Kalevi Kull, and Susan Petrilli (eds) (2011) *Semiotics Continues to Astonish: Thomas A. Sebeok and the Doctrine of Signs*, Berlin & Boston: Walter de Gruyter.
- Dubois, Jean, Mathée Giacomo, Louis Guespin, Christiane Marcellesi, Jean-Baptiste Marcellesi, and Jean-pierre Mevel (eds) (1973)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Paris: Larousse, 1-516.
- Ferguson, Charles (1959) 'Diglossia', *Word* 15: 325-40.
- Fisch, Max, Edward Moore, Christian Kloesel, et al. (eds) (1982) *Writings of Charles S. Peirce: A Chronological Edition Volume 1 (1857-1866)*, Bloomington: Indiana UP, 333.
- Gorlée, Dinda (1994) *Semiotics and the Problem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miotics of Charles S. Peirce*, Amsterdam: Rodopi.
- Gorlée, Dinda (2004) *On Translating Signs: Exploring Text and Semio-Translation*, Amsterdam: Rodopi.
- Gorlée, Dinda (2007) 'Broken Signs: The Architectonic Translation of Peirce's Fragments', *Semiotica* 163-1/4: 209-87.
- Hartmann, R. and F. Stork (eds) (1972) *Dictionary of Language and*

- Linguistics*, Amsterdam: Applied Science, 113.
- Hatim, Basil and Jeremy Munday (2004) *Translation: An Advanced Resource Book*, Abingdon & New York: Routledge.
- Hermans, Theo (2013) 'What Is (Not) Translation?', in Carmen Millán and Francesca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75-87.
- Jakobson, Roman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euben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Harvard UP, 232-39.
- Kuhn, Thoma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Second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m, Dhonghui (2014b) 'Jakobson's Translation Typology Revisited: Situated Cognition and Its Translative Natur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Beonyeokhak Yeongu)* 15-3: 331-75.
- Lim, Dhonghui (2014c) 'Are Existence and Possession (In)alienable?: A Baby-Mother Experience as the Proto-Gestalt of Possession (an updated version)', in IASS (ed.) *The Proceedings of the 12th World Congress of the IAS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Sofi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 Lim, Eo Kyung (2012) 'Why Is Possession Intrinsic and Polysemous in English and Korean?: Cognition, Translation, and Interdisciplinarity for the Corporeal Semantics', in SLE (ed.) *The Proceedings of the SLE 2012 45th Annual Meeting & International Conference*, Sweden: Societas Linguistica Europaea.
- Lim, Eo Kyung (2013) 'Semiotic Translations of Possession: Multidimensionality of Its Embodiment', Ph.D. Dissertation, B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 Merrell, Floyd (1997) *Peirce, Signs, and Meaning*,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illán, Carmen and Francesca Bartrina (eds) (2013)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 Peirce, Charles (1933)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 4)*, in

- Charles Hartshorne and Paul Weiss (eds), Cambridge: Belknap/ Harvard UP.
- Peirce, Charles (1934)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 5)*, in Charles Hartshorne and Paul Weiss (eds), Cambridge: Belknap: Harvard UP.
- Peirce, Charles (1982) *Writings of Charles S. Peirce: A Chronological Edition Volume 1 (1857-1866)*, Bloomington: Indiana UP.
- Petrilli, Susan (ed.) (2003) *Translation Translation*, Amsterdam: Rodopi, 17-53.
- Petrilli, Susan (2004) 'The Semiotic Machine, Linguistic Work, and Translation', in URLP (ed.) *Th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ranslating with Computer-assisted Technology: Changes in Research, Teaching, Evaluation, and Practice*, Rome: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 Petrilli, Susan (2009) *Signifying and Understanding: Reading the Works of Victoria Welby and the Signific Move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 Petrilli, Susan (2012) *Expression and Interpretation in Language*, New Brunswick: Transaction.
- Petrilli, Susan (2014) *Sign Studies and Semioethics: Communication, Translation, and Values*, Berlin: Walter de Gruyter.
- Petrilli, Susan and Augusto Ponzio (2005) *Semiotics Unbounded: Interpretive Routes through the Open Network of Sign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Ponzio, Augusto (2008) 'Semiotics After Sebeok', in John Deely and Leonard Sbrocchi (eds) *Semiotics 2008: Specialization, Semiosis, Semiotics*, Ottawa: Legas, 3-22.
- Shuttleworth, Mark and Moira Cowie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Weiss, Paul and Arthur Burks (eds) (1931-1966)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Cambridge: Belknap.

[Abstract]

**Petrilli's Notion of Translation:  
The Potential for Sign-based Transhumanities**

Lim, Dhonghui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introduce and examine the (atomic) notion of translation as an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the ontology of the sign itself—as well as the organismic and systematic aspects of the semiosis-sensitive translation typology—proposed by Susan Petrilli who has much contributed for the development of meta translation theory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Specifically speaking, it seeks to stress and evaluate the value of the Petrillian perspective on translation viewing the Peircean notion of translativity as the key milestone for a new, Biosemiosphere-sensitive paradigm of the (meta) translative/ translational mechanism, which is conducive to the evolutionary (revis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ventional, narrow notion of (interlingual) translation and to the transhumanities-sensitive transdisciplinary communication. Employing and reviving the translative mechanism of the interpretant (underlying the Peircean triadic model of the sign ontology) and the global dimension of the Biosemiosphere (meaningfully interconnected with the Anthrosemiosphere thanks to Sebeok) in a transdisciplinarily organismic and cooperative way, Petrilli proposes that, by having another sign brought across boundaries and function as the interpretant of the sign itself, the sign's constitutive modality slash mechanism is (or, at least, entails) translation as such (Petrilli 2003; Petrilli 2012; Petrilli 2014) (cf. TRANSLATION, Lim, E. 2013; Lim, D. 2014a) and that it is highly feasible to systematically classify and specify the translation typology within the Biosemiosphere and, also, across

the Anthroposemiosphere, especially, by investigating the translative nature (and the structural mechanism) of the sign itself. While paying due attention to Petrilli's (meta) translative notion applied to the realms of the (semiotic/translational) meaning-making processes, the main body of the research introduces and describes what Petrilli considers as the major translation types on the basis of the new notion of translation as such. Subsequently, it shows that translation typology can be subclassified into intersemiotic/ endosemiotic/ anthroposemiotic/ intersemiotic/ interlinguistic/ endolingual/ endoverbal/ endolingual translation types (and, additionally, from endoverbal translation into interlingual/ endolingual translation types and from endolingual translation into diamesic/ diaphasic/ diglossic translation types) (Petrilli 2012: 234, quoted in Lim, E. 2013: 64). With such a microscopic and macroscopic approach to (the possible precursor of) meta translation theory, this research discovers and confirms that, despite the possible room for further discussion and task specification in practice, Petrilli's notion and typology of translation can work as the (meta) epistemological framework and analysis tool to (re-) investigate and (re-) analyz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scopes of various translation phenomena in the global semiosphere(s). In addition, by means of (meta-/ inter-/ trans-) semiotic scrutinization, it becomes evident that the Petrillian translation paradigm can offer us various opportunities to develop the life-oriented transdisciplinary insight into meaning, semiosis, translation, language, and the world(s) (beyond the dichotomy of human/ language/ culture versus animal/ instinct/ nature), which can act as a potential yet critical catalyst for the evolutionary emergence/ establishment of the new transhumanitie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proposes that Petrilli's (meta) translation theory can play positive roles as a constructive (meta) epistemological and translative/translational paradigm, with which all those "translators" in many disciplines can collaborate effectively and "translate" multidimensionally, especially, via critical (meta-/ trans-) semiotic investigation and open transdisciplinary communica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our transhumanities.

▶ Key Words: translativity of the sign, meta translation theory, Petrilli, Peirce, translation typology, transhumanities

임동휘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전임대우강사

[dhlim@pusan.ac.kr](mailto:dhlim@pusan.ac.kr)

관심분야: 메타번역이론, 기호번역학, 문화번역, 언어과학과 번역, 초인문학

논문투고일: 2015년 4월 17일

심사완료일: 2015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8일